

[붙임2]

제출양식(Proposal)

한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이를 유지해나가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 또한 올바른 이미지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 문화의 힘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라는 거센 바람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거나 인지도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국내외에서 직접 체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필자가 중국과 태국에서 거주했던 시기인 2005년부터 2009년에는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등이 절정에 달했다고 보여질만큼 열정적이었으며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어슴푸레했던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한국 음악과 드라마 등 대중 콘텐츠가 크게 한몫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통로들이 다양해지면서 이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기심이 인지도, 그리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층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류를 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일부와, 다소 비합리적이고 상술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한국 관광업의 부작용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험한류로 이어지는 시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콘텐츠 수출, 제작 협력 등의 새로운 시도로 현재 한류 바람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분명 긍정적이고 흥미있는 한국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주축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주변의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을 주로 표현했다면 한국 대중 문화의 활발한 전파에 힘입어 2010년 이후로는 확실히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음식이나 문화를 소개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빈도수가 예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 문화의 노출 빈도 증가가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필자가 아시아 대륙에서 장기간 거주한 이후 2013년 네덜란드 및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이 아시아 사람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전무'하며 무관심 정도 자체가 아닌 '무지' 상태였다. 한 국가에 대해 비/호감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한국'을 떠올렸을 때 마땅한 키워드가 머릿 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이 그 어떤 표현보다 마음에 와 닿았다. 유럽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보편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 국가를 다루는 매우 짧은 부분에 불과하며 한국을 따로 소개하는 부분은 그나마 전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북한과 헛갈린다는 사실이 놀랍지만은 않다. 한국에서 왔다고 짧게 소개하면 'South?'라고 되묻는 사람들, 심지어 'North or South?'라고 묻는 이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동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

직 한국은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놀랍게도 많다.

한국이 유럽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유럽 대륙이 원거리에 위치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일본 문화에 밀려 상대적으로 설 수 있는 자리를 잃은 탓이기도 하다. 유럽을 포함한 서방 사회의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으나 아쉽게도 ‘동양 문화’하면 중국 혹은 일본 문화로 인식하거나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일 양국의 소프트 파워 전파와는 또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한국만의 국가 이미지 및 문화를 파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또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아시아 대륙 내에서는 유교 문화권 등 근접한 문화라는 이점 등으로 인해 한류 등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월할 수도 있으나, 유럽 내에서 이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아시아에서의 만큼 성공을 거두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 알리기 관련 논문, 페이지, 기고, 관련 기관들 간의 논의 등 ‘연구’는 수없이 진행되었지만 정작 세계 각국 현지, 특히 유럽 내에서의 한국 알리기 시장 조사 및 다양한 ‘맞춤형 시도’는 그간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에세이를 통해 필자가 제안할 부분은 주로 유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유럽 내 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제안이다.

1. 시행 프로그램 검토

대다수의 정책이 그렇듯, 기록 검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이에 최근 5-10년간 국내외 거주 외국인 대상(특히 유럽) 한국 이미지 개선 및 한국 문화 전파 관련 시행 사업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중 일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한국에서 방송사에 재직할 당시, 전 세계의 K-Pop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해외 케이팝 경연대회 수상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음악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내의 그들의 일정에는 한국 전통, 현대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정작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주변으로 전파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바른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이벤트가 아닐까. 이와 흡사한 프로그램들이 공공기관 뿐 아니라 여러 기업, 민간 기관을 통해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하고 효율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배제하는 등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공공, 민간 차원 등에서의 다양한 접근

유럽 각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 알리기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한국에 대한 이해도 및 우호도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정, 이를 롤모델로써 벤치마킹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

유 중 하나가 문화적 근접성인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적으로 상이한 유럽에서의 동일한 방식 적용이 아닌,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영국의 경우 한국 문화원 등이 있어 각종 이벤트를 통해 한국 문화 알리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원 뿐만이 아닌 다양한 민간 단체, 학교, 커뮤니티 등을 통한 접근 또한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 문화원마저도 없기에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다. 유럽 내 모든 국가에서의 한국 문화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서유럽의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의 문화원 혹은 문화 홍보원 개설은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까 싶다. 특히 네덜란드는 서유럽 및 전 유럽 대륙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려할 만하다.

3. 과감한 시도

최근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 Cornwall주의 한 Secondary School에서 일본 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는 한 일본 학부모의 제안으로 계획된 이벤트로 아이들과 함께 일본 스시롤을 만들어보는 행사였는데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소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마련한, 그리고 일본 음식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킨, 작지만 영리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다. 이와 흡사한 한국 요리, 전통 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크고 작은 학교에서 한영(韓英) 기관의 협력하에 성사된다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확산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영국 현지 기업에 재직 중인 한국인들이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혹은 영국 전역의 한국 유학생들이 학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및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국 문화원 등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한국 레스토랑, 아시아 슈퍼마켓 등이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음식에 대해 들어본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이벤트가 마련된다면 세계 속의 한국 음식 및 문화를 짧게나마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4. 지속 가능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한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과 같은 공모전의 지속적인 시행은 해외 거주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신선한 아이디어 등을 얻을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한국 알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쌍방향식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실제로 반영하는 실천 또한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외에도 타겟별로 외국인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유용하고 맞춤형인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부들의 티(TEA) 모임을 타겟으로 우리의 떡, 한과 만들기 등을 소개하거나 대학생들에게 한국 교환학생 및

문화 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내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방면에서 한국은 수 많은 매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를 외국인 뿐 아니라 타문화와 공유할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참여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도 및 방안만이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발로 뛰는 동분서주·고군분투형 정책이 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날짜(Date) __2015.9.29__

서명(Signature) _____